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원의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홍효석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주임교수)*

이춘화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회계정보학과 경영학석사)**

조국연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원부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남지역의 제1금융권 68건 및 제2금융권 87건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 46건 등 모두 201건의 표본을 확보하고 설문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에서 종사자들이 느끼는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원부정 형태 또는 사원부정 욕구들 가운데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등의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은 성별과 담당업무에 따라서 부정의 욕구를 느끼는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금품수수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타 업무종사자에 비해 금품수수의 욕구를 보다 더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주제어: 윤리경영, 금융사고, 금융기관 종사원, 인지, 경험

1. 서 론

금융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고객에게 친화적 이미지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윤리적인 면과 사회적

*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주임교수, justin@jinju.ac.kr

**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회계정보학과 경영학석사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cky21628@hanmail.net

인 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함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위탁·운용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사회구성원과 공유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금융사고는 급격한 경영위축을 초래한다. 특히 금융사고는 대형금융사고를 비롯하여 소규모의 각종 금융사고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중 금융사고의 94.4%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금융감독원, 2003). 각종 금융사고의 원인 중 직원들의 부정(不正) 등 윤리의식 부재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내부감사 및 통제와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윤리경영 규정이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종사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 종사원들에 의한 금융사고는 사후적인 관리나 발견의 가능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의 사전방지가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는 것이며, 더불어 금융기관 종사원들이 부정을 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 등이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원부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남지역의 제1금융권 68건 및 제2금융권 87건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 46건 등 모두 201건의 표본을 확보하고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물론 내부감사인과 직원에게 금융사고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확충하고, 원칙적인 감사 등을 통한 감시 기능의 실질적인 강화, 사전 예방적 감시체제의 조기 도입 및 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등으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연구

2.1 사원부정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

Albrecht, Romney, Cherrington, Payne and Roe(1982)와 Albrecht, Howe and Romney(1984)는 사원부정의 개인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적 환경특성에 대해 식별하고, 그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Albrecht, Romney, Cherrington, Payne and

Roe(1982)는 사원부정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 동안 1,500개의 부정관련자료의 검토, 다수의 부정행위자들 및 희생자들과의 면접, FBI, SEC 등과 같은 5개 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요인들을 식별하였다.

Albrecht, Howe and Romney(1984)는 이전 연구에서 식별된 부정요인들에 대해 사원부정을 경험한 내부감사인들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를 통해 발생원인별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Bologna(1984)는 범죄학, 사회심리학, 형법 및 산업안전분야 권위자들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부정요인을 개발하여, 공인회계사집단과 자료처리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사원들이 왜 부정을 저지르는가에 대해 응답자들의 인식도에 관한 비율을 조사하였다. 사원부정에 관한 개별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연구결과 사원부정은 개인의 습관, 성향 및 재무적 문제로 인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nrath(1970)는 Price Waterhouse 회계법인에 의해 문서화된 150개의 미공표 부정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원부정은 방법적으로 59%가 계정변경을 통해, 그리고 41%가 실질변경을 통해 저지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원부정의 발생원인중 72%가 내부통제결함으로 보고하고 있다.

Silvester(1978)는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건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부정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원부정은 방법적으로 62%가 문서조작을 통해 그리고 6%가 계정조작을 통해 저지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조작은 48%가 관련문서의 변경을 통해 저지러졌고, 계정조작은 거짓 또는 오류기입이 66%로 가장 많았다.

Guercio, Rice 및 Sherman(1988)은 실무계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 1,775명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328명의 공인회계사가 부정사례에 대해 응답했고, 이중 270개의 사례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연구결과, 사원부정은 방법적으로 38%가 기입의 생략을 통해 그리고 24%가 거짓문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발생원인의 45.5%가 내부통제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1995)는 사원부정의 특성에 관한 상호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645개의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출법에 따라 설문지 발송대상 기업체를 선정하여 1차, 2차에 걸쳐 설문지를 우송한 결과 53개의 기업이 설문지에 응답·회신하여 주었다. 사원부정 사례 52건 중 사원들의 부정행위동기는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유혹으로 인한 동기가 21건(40.3%), 지나친 과소비적 생활로 인한 동기가 12건(23%), 그리고 업무 및 조직과 관련한 동기가 13건(25%)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탐욕 또는 과소비 및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금전적 문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한 동기가 39건(75%)으로 조직의 환경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한 동기 13건(25%)에 비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원부정은 사원들이 개인적인 동기(문제)를 지닌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사원부정의 영향변수와 관련한 연구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가 윤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통계적 변수는 연령, 성별, 직급, 근무기간, 소득수준, 교육정도, 종교 등이다. 성별에서 Hegarty and Sims, Jr.(1978), Fritzsche(1988) 등은 남성과 여성 간 의사결정의 윤리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Chonko and Hunt(1985)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윤리의식이 낮다는 주장, Barnett and Karson(1987), Gable and Topol(1988) 등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윤리의식이 높다는 주장을 했다. Chonko and Hunt(1985)는 성, 직급 그리고 교육유형이 종사원의 윤리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령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Hunt, Chonko and Wilcox는 연령은 마키아벨리즘과 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마키아벨리즘적인 성향이 적은 것으로 보고했다.

교육수준은 윤리의식의 발달단계(Cognitive Moral Development: CMD)를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변수이며(Rest, 1986), 연령과는 독립적으로 CM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Thomas, 1990). 박홍식(1998)은 한국 대기업의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윤리적 성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윤리적인 엄격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근무경력도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사회화되었는가와 관련이 있다. 즉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개인은 해당조직의 공동언어에 익숙하게 되고, 또한 그 조직의 가치관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박홍식, 1998). 이러한 사실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Vitell Jr.(1986)는 윤리와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MIS 전문직을 대상으로 급여, 승진, 동료, 상관, 직무자체 등에 대한 만족에 대해 실증조사를 한 결과 MIS 전문직은 최고경영층이 윤리행동을 강조할 때와 자신들의 기업내에서 윤리와 성공 간의 낙관을 인지하는 풍토에서 자신들 직무의 다양한 차원들에 더욱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Victor and Cullen(1988)은 4개의 기업(인쇄회사, 금융,

지방전신전화회사, 제조업)을 대상으로 윤리풍토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서 윤리면의 반응과 기업윤리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배려형의 풍토와 수단형의 풍토가 그들 회사의 윤리에 대해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윤리를 추구하는 독립형 풍토와 사회이익을 중시하는 배려형 및 법과 규정 중시 풍토에서 회사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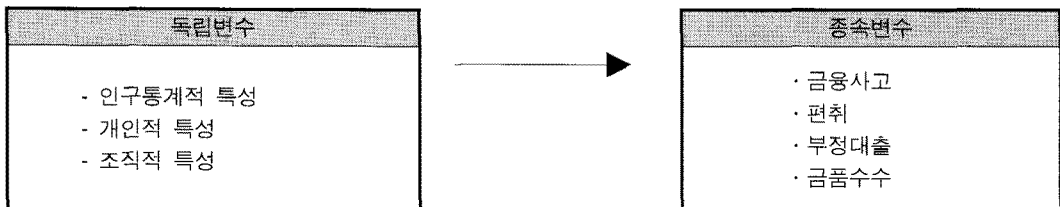
Laczniak and Inderrieden(1989)은 명시된 조직적 관심(stated organizational concerns; 윤리강령, 최고경영자의 지시문서, 처벌경고 등)이 종업원의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처벌경고를 포함한 윤리강령은 아주 심각한 비윤리적 행동은 경감시킬 수 있었지만 경미한 비윤리적 행동에는 별 효과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원의 인지 및 경험이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요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연구가설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및 사원부정에 대한 욕구의 인지정도가 금융기관 종사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가설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개인적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조직적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 가설 검증에 필요한 변수의 속성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2.1 종속변수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종사원들(경영층 사원 및 비경영층 사원 포함)이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목적에 반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당행위(횡령, 배임, 위변조, 사기, 중수뢰, 직무유기 등)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목적에 반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당행위를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로 정의한다. 인지는 업무를 처리하는 중 금융사고에 대한 지식과 느끼는 충동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험은 인지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업무는 출납 및 공과금 수납업무, 수신관련 업무, 여신관련 업무, 경제사업 관련 업무, 총무업무 등으로 분류한다. 각 세분화된 업무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의 유형을 설정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한다.

3.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들 가운데 우선, 인구통계적 변수로는 연령,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 근속기간, 업무, 직위 등 개인적인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과 개인의 생활습관이 나 여건 및 성향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부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통제 및 운영과 관련된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설문응답자의 현재 나이이며, 성별은 남녀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다. 결혼유무란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묻는 것이다. 교육수준은 설문응답자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등 4가지로 나누었다.

근속기간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얼마동안 근무 해오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모두 5단계로 나누어 질문했다.

업무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묻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들을 출납과 공과금, 수신, 여신, 경제사업, 총무 및 기타업무로 나누었다.

직위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의 직급을 묻는 것으로 기능·계약직, 계장·주임, 과장대리, 과장, 차장, 상무 이상 등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호칭이 다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호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구통계적 변수는 통상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 변수로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인구통계적 변수는 개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이나 사고체계와 연관된 변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이란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성향, 고객과의 관계나 주위로부터 평판, 현재의 직무나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의 생각, 과거 및 현재 자신의 생활여건과 관련된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는 가정불안, 사행심리, 직무요인(불안) 등을 개인적 특성 변수로 도입하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끝으로 조직적 특성이란 소속 금융기관의 승인절차나 종사원에 대한 신뢰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회계책임, 권한체계와 기록, 사원관리나 인사정책 및 보안상태, 예산집행과 성과목표 설정 등 각종 통제나 운영과 관련된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는 불투명성, 회계절차, 권한체계 등을 조직적 특성 변수로 도입하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3.2.3 표본추출

본 연구를 위해서 경남지역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및 서울 등 그 외의 지역의 제2금융권 종사원들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표본을 수집하였다. 1차 금융기관 종사원들을 직접 만나 설문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하여 총100부를 발부하여 74개의 응답을 받았고, 2차 개인우편을 통하여 100부를 발송하여 67개의 응답을 그리고, 3차 인편을 통하여 100부를 발부하여 72개의 응답을 받아 2004년 11월 20일까지 총 213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들 표본 중 입력하는 과정에서 12개의 표본은 설문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거나 인구통계적변수 부분의 무응답으로 제외된 최종 201부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201부의 표본은 경남지역 제1금융권에서 68부, 제2금융권에서 87부와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 46부의 응답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변수들의 측정에 대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Alpha(α)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타당성검증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방법으로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1 표본의 특성

<표 1>은 표본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전체의 57.2%, 여자가 42.8%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35.8%, 30대가 41.3%, 40대가 18.9%, 50대 이상이 4%를 차지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75.6%, 미혼이 24.4%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상이 40.8%, 전문대졸이상이 21.4%, 대학졸업이 이상이 37.8%를 차지하였다. 근속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전체의 5.5%, 1년에서 3년 미만이 13.4%, 3년에서 5년 미만이 12.9%, 5년에서 10년 미만이 16.4%, 10년 이상의 근속자가 응답자의 51.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업무별로 구분해 보면, 출납, 공과금, 생산기술직이 10.9%, 수신관련업무가 22.9%, 여신관련 업무가 20.9%, 경제사업관련이 29.9%, 총무 및 기타 업무가 15.4%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직위는 기능, 계약직이 20.9%, 계장 및 주임이 19.9%, 과장대리가 42.8%, 과장이 14.4%, 차장이상이 2.0%로 구성되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115	57.2
	여	86	42.8
결혼여부	기혼	152	75.6
	미혼	49	24.4
연령	20대	72	35.8
	30대	83	41.3
	40대	38	18.9
	50대 이상	8	4.0
학력	고졸	82	40.8
	전문대졸	43	21.4
	대졸	76	37.8
근속기간	1년 미만	11	5.5
	1년~3년 미만	27	13.4
	3년~5년 미만	26	12.9
	5년~10년 미만	33	16.4
	10년 미만	104	51.7
업무	출납, 공과금, 생산기술직	22	10.9
	수신관련	46	22.9
	여신관련	42	20.9
	경제사업관련	60	29.9
	총무, 기타	31	15.4
직위	기능, 계약직	42	20.9
	계장, 주임	40	19.9
	과장대리	86	42.8
	과장	29	14.4
	차장, 상무 이상	4	2.0

4.2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본 연구는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도구가 측정목적에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판별 및 개념타당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변수, 조직특성 변수 그리고 사원부정 욕구의 변수를 계산해 내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직교회전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5를 기준으로 그 유의정도를 판단하였다.

개인적 변수의 경우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불만요인의 아이젠 값은 가정불안이 1.960, 사행성이 1.824, 직무불만이 1.540 등으로 나타났다. 또 <표 3>의 조직적 특성 변수의 경우, 회계처리 절차 명확성 변수는 4.067, 권한체계 명확성 변수는 2.204, 조직불투명성은 2.032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원부정 욕구에 있어서는 편취가 6.263, 부정대출이 3.699, 금품수수가 2.849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신뢰성분석 결과와 종합할 때 연구변수들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는 신뢰할 수 있고 측정목적에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성원의 부정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항목들의 요인분석의 결과는 앞의 <표 4>와 같다.

<표 2> 개인적 특성 변수의 타당성 분석 결과

구 분	가정불안	사 행 성	직무불만
나는 재테크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	.719		
나는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	.626		
나는 가정의 불화로 불안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	.589		
나는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540		
나는 평균이상의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		.806	
나는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다.		.740	
나는 도박을 즐기는 편이다.		.569	
나는 현재 내 직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769
나는 우리 회사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688
나는 상사 또는 동료들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다.			.494
Eigen Value	1.960	1.824	1.540
% of Variance	19.596	18.242	15.397
Cronbach's α	.5825	.5868	.4977

<표 2>와 <표 3>은 개인적 특성변수와 조직적 특성변수 그리고 종업원의 부정욕구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조직적 특성 변수의 타당성 분석 결과

구 분	회계절차	권한체계	조직
	명확성	명확성	투명성
우리 회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848		
우리 회사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이 부족하다.	.770		
우리 회사는 불충분한 문서와 기록이 문제다.	.732		
우리 회사는 명확하고 일관된 인사정책이 부족하다.	.722		
우리 회사는 사원의 배경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	.700		
우리 회사는 비현실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676		
우리 회사는 부서에 대한 수시확인이 결여되어 있다.	.592		
우리 회사는 회계책임이 미분리되어 있다.		.723	
우리 회사는 거래자료의 보관과 거래승인이 미분리되어 있다.		.653	
우리 회사는 성과에 대한 독립적 확인이 없다.		.590	
우리 회사는 명확한 권한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502	
우리 회사는 일부 사원들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824
우리 회사는 투자이익 공개가 결여되어 있다.			.599
Eigen Value	4.067	2.204	2.032
% of Variance	31.287	16.957	15.628
Cronbach's α	.8771	.6744	.4542

<표 4> 금융사고 변수의 타당성 분석 결과

구 분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위조전표 등에 의하여 예금을 피사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870		
자금을 수수하면서 편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857		
타점권의 입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856		
어음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815		
공과금 수납분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93		
미회수된 대출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91		
객장보관어음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22		
고객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07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61	
일시적 무자원입금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59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735	
고객과 사적금전대차에 대한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690	
불량거래처에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613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855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677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662
Eigen Value	6.263	3.699	2.849
% of Variance	39.144	23.118	17.808
Cronbach's α	.9635	.8593	.8968

위에서 수행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은 결혼여부, 근속기간, 직위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성별에 있어서는 금품수수와 중간정도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수							개인적 특성 변수			조직적 특성 변수			금융사고 변수		
	연령	성별	결혼 여부	학력	근속 기간	업무	직위	가정 불안	사행 심리	직무 요인	불투 명성	회계 절차	권한 체계	편취	부정 대출	금품 수수
연령	1.000															
성별	-.398([^])	1.000														
결혼 여부	-.573([^])	.212([^])	1.000													
학력	-.215([^])	-.255([^])	.215([^])	1.000												
근속 기간	.653([^])	-.056([^])	-.643([^])	-.248([^])	1.000											
업무	.213([^])	-.296([^])	-.193([^])	-.032([^])	.081	1.000										
직위	.642([^])	-.241([^])	-.513([^])	-.014([^])	.676([^])	.188([^])	1.000									
가정 불안	.350([^])	-.287([^])	-.148([^])	.011([^])	.229([^])	.098([^])	.253([^])	1.000								
사행 심리	-.034([^])	-.140([^])	-.036([^])	.140([^])	-.119([^])	-.033([^])	-.157([^])	.280([^])	1.000							
직무 요인	.084([^])	-.001([^])	-.041([^])	-.005([^])	.158([^])	-.063([^])	.027([^])	.350([^])	.103([^])	1.000						
불투 명성	.028([^])	.087([^])	-.017([^])	-.008([^])	.061([^])	-.151([^])	.017([^])	.198([^])	.200([^])	.387([^])	1.000					
회계 절차	.068([^])	-.019([^])	-.119([^])	-.054([^])	.220([^])	.083([^])	.114([^])	.227([^])	.065([^])	.414([^])	.444([^])	1.000				
권한 체계	-.023([^])	.130([^])	-.068([^])	-.006([^])	.096([^])	-.021([^])	-.008([^])	.146([^])	.129([^])	.318([^])	.498([^])	.570([^])	1.000			
편취	.005([^])	-.075([^])	.020([^])	-.063([^])	-.059([^])	.072([^])	-.109([^])	.207([^])	.118([^])	.008([^])	.017([^])	.057([^])	.046([^])	1.000		
부정 대출	.097([^])	-.074([^])	-.053([^])	-.123([^])	.059([^])	.064([^])	.012([^])	.293([^])	.145([^])	.153([^])	.062([^])	.143([^])	.113([^])	.752([^])	1.000	
금품 수수	.072([^])	-.199([^])	-.031([^])	.034([^])	.000([^])	.163([^])	-.008([^])	.247([^])	.182([^])	.078([^])	.063([^])	.071([^])	.054([^])	.747([^])	.641([^])	1.000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이는 우리가 설정한 연구 가설들 가운데, 하나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사원부정욕구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근속기간과 직위 간에도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상위직위로 올라가게 되는 인사구조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있어서는 담당업무의 경우에는 금품수수와 약하긴 하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설정한 연구가설들 가운데, 사원부정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 변수 중에서 가정불안 요인은 또 다른 개인적 변수들과도 비교적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종속변수들인 부정욕구 요인들과도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변수와의 관련성은 개인적 특성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정불안 요인은 사원부정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행성 요인과 직무불만족 요인은 사원부정 욕구와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적 변수들 가운데서는 사원부정 욕구 요인들과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로 볼 때, 앞서 설정한 인구통계적 변수, 개인적 변수 그리고 조직적 특성 변수들은 사원부정 욕구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통계적 변수와 개인특성변수의 경우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앞서 설정한 연구 가설들을 통해 그 관계를 보다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3 가설검정

4.3.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었다. 가설1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변수 가운데, 성별, 결혼여부와 사원 부정 욕구의 차이 분석은 t-검증을, 학력, 근속기간, 업무 그리고 직위와 사원부정 욕구의 차이분석은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 성별에 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금품수수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사원부정 욕구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금품수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성별에 따른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의 t-검증 결과

	성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편 취	남자	115	1.2957	.45079
	여자	86	1.2311	.38516
부정대출	남자	115	1.4035	.53507
	여자	86	1.3233	.54722
금품수수	남자	115	1.3884	.58395
	여자	86	1.1822	.37801

		F	sig.	t	df	sig.	평균차	표준편차
편취	등분산가정	4.800	.030	1.068	199	.287	.0645	.006045
	비등분산가정			1.092	195.432	.276	.0645	.05909
부정대출	등분산가정	.307	.580	1.042	199	.299	.0802	.07703
	비등분산가정			1.038	181.007	.301	.0802	.07728
금품수수	등분산가정	25.832	.000	2.857#	199	.005	.2062	.07218
	비등분산가정			3.032#	195.308	.003	.2062	.06802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 결혼여부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여부는 금융사고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결혼여부에 따른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의 t-검증 결과

	결혼여부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편 취	기혼	152	1.2632	.42192
	미혼	49	1.2832	.43509
부정대출	기혼	152	1.3855	.56056
	미혼	49	1.3184	.47420
금품수수	기혼	152	1.3092	.53032
	미혼	49	1.2721	.46980

		F	sig.	t	df	sig.	평균차	표준편차
편취	등분산가정	.356	.551	-.286	199	.775	-.0200	.06984
	비등분산가정			-.282	79.198	.779	-.0200	.07095
부정대출	등분산가정	.449	.504	.756	199	.451	.0672	.08887
	비등분산가정			.823	94.867	.412	.0672	.08159
금품수수	등분산가정	.222	.638	.437	199	.662	.0371	.08483
	비등분산가정			.465	90.670	.643	.0371	.07972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 학력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과는 달리 학력정도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8> 학력에 따른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의 ANOVA 검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편 취	.212	2	.106	.586	.557
집단간	35.770	198	.181		
집단내	35.981	200			
합 계					
부정대출	1.054	2	.527	1.819	.165
집단간	57.355	198	.290		
집단내	58.409	200			
합 계					
금품수수	.552	2	.276	1.039	.356
집단간	52.560	198	.265		
집단내	53.112	200			
합 계					

<표 9> 근속기간에 따른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의 ANOVA 검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편 취	.540	4	.135	.746	.561
집단간	35.442	196	.181		
집단내	35.981	200			
합 계					
부정대출	1.181	4	.295	1.012	.403
집단간	57.227	196	.292		
집단내	58.409	200			
합 계					
금품수수	1.725	4	.431	1.645	.165
집단간	51.387	196	.262		
집단내	53.112	200			
합 계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의 세 사원부정 욕구 변수들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 업무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금품수수 욕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 수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들에 비해 경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있어 평균에 있어서는 .3191($p=.038$)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금품수수의 욕구를 느끼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업무에 따른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의 ANOVA 검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편 취					
집단간	1.087	4	.272	1.526	.196
집단내	34.894	196	.178		
합 계	35.981	200			
부정대출					
집단간	1.014	4	.253	.865	.486
집단내	57.395	196	.293		
합 계	58.409	200			
금품수수					
집단간	2.882	4	.721	2.812	.027 ^
집단내	50.230	196	.256		
합 계	53.112	200			

*: 10%, ^: 5%, #: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인구통계적 변수 중에서 직위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의 사원부정 욕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1> 직위에 따른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의 ANOVA 검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편 취					
집단간	.618	4	.154	.856	.492
집단내	35.364	196	.180		
합 계	35.981	200			
부정대출					
집단간	.299	4	.075	.252	.908
집단내	58.110	196	.296		
합 계	58.409	200			
금품수수					
집단간	.080	4	.020	.074	.990
집단내	53.032	196	.271		
합 계	53.112	200			

4.3.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에서는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과 관련한 변수인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에 대해 개인적 특성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응답자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근속기간과 직위는 높은 상관관계(.676)를 보이고 있어, 아래의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근속년수를 제외하고 직위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독립변수간의 유사한 개념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지는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높아지고, 설명력이 높아지는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편취에 대한 다중회귀방정식에서는 F값이 2.090로 $p=0.032$ 로 유의하며 변이 설명력(R^2)이 9%이며 조정된 변이 설명력은 4.7%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인 편취를 설명하는 부분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립변수 중 가정불안요인($t=3.025$, $p=.003$)과 직위($t=-1.886$, $p=.061$)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변수들에서는 편취에 대한 유의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부정대출에 대한 다중회귀방정식에서는 F값이 2.801, $p=0.004$ 수준으로 유의하며 변이 설명력(R^2)이 11.7%이며 조정된 변이 설명력은 7.5%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인 부정대출의 변이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가정불안요인($t=3.097$, $p=.002$)과 학력($t=-1.874$, $p=.062$)은 부정대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안 요인과 학력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변수들에서는 부정대출에 대한 유의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금품수수에 대한 다중회귀방정식에서는 F값이 2.801, $p=0.004$ 수준으로 유의하며 변이 설명력(R^2)이 11.7%이며 조정된 변이 설명력은 7.5%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인 부정대출의 변이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가정불안요인($t=3.097$, $p=.002$)과 학력($t=-1.874$, $p=.062$)은 부정대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안 요인과 학력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변수들에서는 부정대출에 대한 유의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구성원의 조직적 특성들은 구성원의 부정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 12> 가설 2의 검증 결과

구분 독립변수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상수		3.452		1.914		2.039
연령	-.012	-.111	-.017	-.160	-.017	-.157
성별	-.050	-.577	-.033	-.390	-.120	-1.416
결혼여부	-.005	-.056	.002	.020	.004	.042
학력	-.086	-1.071	-.148	-1.874 ^	-.014	-.179
업무	.063	.853	.044	.599	.132	1.817*
직위	-.186	-1.886 ^	-.049	-.509	-.083	-.854
가정불안	.255	3.025#	.257	3.097#	.195	2.339#
사행성	.032	.417	.076	1.004	.102	1.352
직무불만	-.075	-1.013	.060	.820	.011	.154
F 값	2.090		2.801		2.676	
R2	.090		.117		.112	
조정된 R2	.047		.075		.070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4.3.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에서는 조직적 특성변수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적 특성변수로는 조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 불명확성의 3가지 독립변수가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의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13> 가설 3의 검증 결과

구분 독립변수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	t 값
상수		3.580		2.473		2.625
연령	.055	.492	.077	.692	.039	.356
성별	-.107	-1.217	-.098	-1.124	-.181	-2.085 ^
결혼여부	.021	.233	.029	.317	.010	.114
학력	-.081	-.994	-.132	-1.622	-.001	-.017
업무	.061	.788	.023	.305	.133	1.760*
직위	-.176	-1.789*	-.063	-.645	-.099	-1.023
불투명성	-.001	-.013	-.010	-.118	.075	.889
회계절차	.043	.477	.098	1.079	.012	.131
권한체계	.038	.403	.078	.840	.038	.410
F 값	.920		1.168		1.563	
R2	.042		.052		.069	
조정된 R2	-.004		.008		.025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가설 2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설 3을 검증하기에 앞서, 설문 응답자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 근속기간과 직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676)를 보이고 있어, 아래의 다중회귀모형에서는 근속년수를 제외하고 직위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독립변수간의 유사한 개념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지는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높아지고, 설명력이 높아지는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조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의 불명확성이 편취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앞의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조직특성변수들은 편취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취에 대한 다중회귀방정식에서는 F값이 0.920이며, $p=0.509$ 로 회귀모델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R²)역시 4.2%이며 조정된 변이 설명력은 -0.4%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인 편취를 설명하는 부분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립변수 중 직위요인($t=-1.789$, $p=.075$)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변수들에서는 편취에 대한 유의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조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의 불명확성이 부정대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앞의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조직특성변수들은 부정대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대출에 대한 다중회귀방정식에서는 F값이 1.168이며, $p=0.318$ 로 회귀모델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R²)역시 5.2%이며 조정된 변이 설명력은 0.8%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인 부정대출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 독립변수들은 부정대출과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 불명확성이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앞의 <표 13>에 제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특성변수들은 금품수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품수수에 대한 다중회귀방정식에서는 F값이 1.563이며, $p=0.129$ 로 회귀모델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R²)역시 6.9%이며 조정된 변이 설명력은 2.5%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인 금품수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과 금품수수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구성원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구가설의 기각 및 채택여부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요약

구분	연구가설의 주요변수관계	기각/채택
가설1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부정욕구의 차이	부분채택
	성별·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부분채택
	결혼여부·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기각
	학력·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기각
	근속기간·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기각
	업무·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부분채택
	직위·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	기각
가설2	개인적 특성과 부정욕구의 영향관계	부분채택
	가정불안, 사행성, 직무불만·편취	부분채택
	가정불안, 사행성, 직무불만·부정대출	기각
	가정불안, 사행성, 직무불만·금품수수	기각
가설3	조직적 특성과 부정욕구의 영향관계	기각
	조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 불명확성·편취	기각
	조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 불명확성·부정대출	기각
	조직불투명성, 회계절차 불분명성, 권한체계 불명확성·금품수수	기각

V. 결 론

본 연구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원부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남지역의 제1금융권 68건 및 제2금융권 87건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 46건 등 모두 201건의 표본을 확보하고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종사자들이 느끼는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원부정 형태 또는 사원부정 욕구들 가운데 편취, 부정대출, 금품수수의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금융사고의 인지 및 경험은 성별과 담당업무에 따라서 부정의 욕구를 느끼는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금품수수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타 업무종사자에 비해 금품수수의 욕구를 보다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사자의 가정 내 불안요소가 발생할 때 가장 많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사행적 성격이나 직무에 대한 불만에 따라서도 부정의 욕구가 발생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회계절차나 조직 내 권한체계의 불명확성, 조직의 투명성과 같은 조직적 특성이 금융기관의 부정발생을 가능케 하는 조직변수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금융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금융사고들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특히, 개인적인 가정문제로 인해 사원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던 조직적 특징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 중소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조직의 관리, 운영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경영자의 자의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사원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조직 수준에서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MF 외 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에서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중, 3중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의 상황을 관리자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근로생활의 질(QWL)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조직수준에서의 공정성과 신상필벌의 엄격성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구성원의 성취욕

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교육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제고 및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금융사고 및 사원부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춰볼 때, 회사 내에 내부 및 외부로부터 부정, 비리 및 불평에 관한 신고함 또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정보제공자를 포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이 조직과 직무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느끼게 하여,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성취욕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장래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연구표본의 선정에 있어 지역적인 한계와 표본 수의 한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탐색적 연구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모형들을 수정, 보완하여 지역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타당한 연구 결과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주장되어져 오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연구 가설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의 회계, 금융담당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적 수준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통해 금융사고 및 사원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 감사총괄국 감사지원팀(2003), "2003년도 금융사고 현황 및 대책", 금융감독원.
- 김영태(1995), "사원부정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감사인판단에 관한 연구 : AHP", 회계학연구, 제20권, 제4호.
- 박홍식(1998), "기업윤리의 상관관계 변수들: 한 대기업 중간관리자들의 경우",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한국경영학회, pp.215-225.
- Albrecht, W. Steve, Marshall B. Romney, David J. Cherrington, I. Reed Payne and Allan V. Roe(1982), "How to Detect and Prevent Business Frau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Albrecht, W. Steve, Marshall B. Romney and Keith R. Howe(1984), "Deterring Fraud: The Internal Auditor's Perspective",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Research Foundation*, Altamonte Springs, Florida 32701: pp.30-40
- Barnett, John H. and Marvin J. Karson(1987), "Personal Values and Business Decision Making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6, pp. 371-382.
- Bologna Jack(1984), *Corporate Fraud: The Basics of Prevention and Detection*, Butterworth Publishers.
- Chonko, Lawrence B. and Shelby D. Hunt(1985), "Ethics and Marketing Management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13, pp.339-359.
- Fritzsche, David J.(1988), "An Examination of Marketing Ethics Role of the Decision Maker,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Management Position, and Sex of the Respondent", *Journal of Macromarketing*, Fall, pp.29-39.
- Gable, Myron and Martin T. Topol(1988), "Machiavellianism and the Department Store Executive", *Journal of Retailing*, Vol.64, pp.68-84.
- Guercio, John, p., E. Barry Rice and Martin F. Sherman(1988), "Ols Fashioned Fraud by Employees is Alive and Well : Results of a Survey of Practicing CPAs", *CPA Journal*, pp.74-77

- Hunt, Shelby D, Lawrence B. Chonko, and James B. Wilcox(1984), "Ethical Problems of Marketing Research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1, pp.304-324.
- Konrath, Farber Larry(1970), *Accounting and Auditing Methods Used in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Employee Fraud*,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p.55-64.
- Silvester, Wilfred Harold(1978), *Analysis of Fraud Cases - Aid to the Auditor*,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pp.59-90.
- Thomas, Walter J.(1990), *Relations Among Business Ethics, Relig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h. D.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Vitell, Scott J. Jr.(1986), *Marketing Ethics: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f a Positive Theory of Decision Making in Marketing Situations Having Ethical Conduct*, Unpublished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A Study on the Recognition & Experience of Institution Employee to the Monetary Circumstances

Hong, Hyo Seog* · Lee, Chun Hwa** · Cho, Kook Yeon***

Abstract

Since 1998, Korean economy has damaged financial structural coordination from business firms to financial institutions. The monetary circumstances, the faithless management in financial institution, caused an usiness shrinkage. Specially, the monetary circumstances come by every year from large to small.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recognition & experience of institution employee to the monetary circumstances that underlie the announcement effect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201 survey which have 1st and 2nd financial institution from Gyeongnam to Seoul.

To examine and identify factors that the Recognition & Experience of the Monetary Circumstances this study uses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The variables SEX, AFF, FRA show expected signs a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variables MAR, SCH, PER, POS, LEN and REC were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nstitution employee, which have male, take part in lending affairs and uneasy home status, have more recognize to the financial circumstances.

Keywords: Recognition, Experience of Institution, Monetary Circumstances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inju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inju National University

*** Seoul University of Venture and Information